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민족자주위업에

조국과 겨레를 위해 바쳐진 위대한 한생

광명성절을 맞이한 온 나라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경모의 정이 차넘치고 있다.

인민의 꿈과 이상이 현실로 펼쳐지는 속에 맞이하는 광명성절 이어서 그이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더 뜨겁게 분출하고있으며 공화국의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이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가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조국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 민족의 통일번영을 위해 한생을 바쳐 고귀한 업적을 쌓으신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호모심의 발원이다.

위인은 사상과 령도, 덕망과 업적으로 후세에 이름을 남긴다.

그러나 세상을 둘러보면 위대한 장군님처럼 한평생 자신의 온 님을 다 바쳐 조국을 수호하고 빛내이시였으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애국헌신의 길을 이어가신 그런 위인은 없는것이다.

일찍이 나라없던 그 세월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시여 항일대전의 총포성을 자장가로 들으며 성장하신 장군님께서서는 통탄산마루에서 다지신 조선을 빛내일 애국의 맹세를 실천하시기 위하여 한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다 바치시고 그 길에서 크나큰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그이께서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분투하시였는가 하는것은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애국령도의 전기간 지구돌레를 17바퀴나 돈것과 맞먹는 167만 4 610여리의 장정을 걸으신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것을 해놓아야 하겠는데 시간이 한호한초 흐르는것이 안타깝다고 하시며 이른 새벽에도, 눈비가 오는 곳은 날가림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장군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주저앉았을 엄혹한 시련의 시

기 불라는 애국헌신으로 조국과 민족, 사회주의의 운명을 구원하고 공화국을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우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였다.

선군으로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고 강성국가의 찬란한 태일을 안아오시려는것이 그이의 결심이고 의지였다.

국력이 약하면 망국노가 된다는 력사의 교훈을 그 누구보다도 뼈에 새기시였기에 그이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치시여 사회주의수호전을 승리로 이끄시였고 강성국가건설의 새 시대를 열여놓으시였다.

몇해전 정초 어느 한 땅크부대를 찾으신 장군님께서서는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경제강국을 건설하자고 하여도 막강한 군사력의 담보가 있어야 한다. 선군을 떠나서는 결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선군의 위력으로 대고조를 일으키는것이 자신의 의도라고 하시였다.

그이의 결심은 곧 실천이었다. 령하 30℃를 기록하는 북방의 맹천 추위와 세찬 눈보라를 헤치시며 회천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대고조의 격전장들을 찾으시였으며 한 여름의 폭양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대한 삼복철강행군을 이어가신 장군님이시였다.

우리 나라를 강성국가로 만드는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며 먼



선군령도의 길에 함께 계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알날의 일도 아니라는 드림없는 인 신념과 의지를 안으시고 앞장에 서 헤쳐가신 그이의 애국헌신

인 기적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성인 우주를 날고 주체섬유, 주체철, 주체비료가 쏟아지는 대경사가 련이어 일어났으며 나라

신 장군님의 로고속에 조선의 위성이 우주를 날고 주체섬유, 주체철, 주체비료가 쏟아지는 대경사가 련이어 일어났으며 나라

에로부터 사람들은 위인의 출현이나 나라와 민족에게 행운이 차례질 정조를 봄우뢰에 비기어 말해왔다.

주제31(1942)년 2월 16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였다.

전해져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날 백두산 동쪽하늘에는 새별이 솟아 눈부신 광채를 뿌리고 천지의 얼음장이 갈라지며 봄우뢰가 련이어 울려했다고 한다.

그것은 민족의 대통운을 예고하는 력사의 봄우뢰였다.

《백두산에 장수별이 솟았다.》

《조선의 미래는 그분의 성덕으로 통성번영할터이니 민족의 대통운이면 이보다 더 큰 대통운이 어데 있는가.》

그이께서 탄생하신 소식은 삼천리각지에 퍼져가 겨레의 가슴가슴에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었다.

총포소리 울무뚝한 항일의 전장에서 백두혈통을 자장가처럼 들으시며 령장의 슬기와 담력, 배짱을 키우신 장군님이시다.

위인의 탄생을 세상에 알린 백두산의 봄우뢰는 그후 총대로 승리만을 떨치는 승리의 봄우뢰로 끝없이 울려 퍼져왔다.

총대우에 평화가 있고 조국과 민족의 안녕과 번영도 있다는 신념을 간직하신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어머니수령님과 함께 선군의 길을 걸으시였다.

돌이켜보면 20세기의 마지막년대인 1990년대는 지구상 곳곳에서 침략과 전쟁의 총

포성이 그치지 않고 재앙의 화염이 하늘가를 뒤덮었던 시기였다.

80여개 나라에서 120건의 무장분쟁과 전란이 일어나 600여만명이 목숨을 잃고 약 3억명의 평화적주민들이 파난민의 수난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조선반도에도 민족의 생명을 위협하며 침략전쟁의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1993년 2월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를 사촉하여 이른바 《핵의혹》을 운운하여 공화국의 군사대상들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하는 《결의》라는것을 채택케 했으며 일시 중단했던

봄 우뢰

침략적인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재개를 공포하고 20여만의 무력과 전략폭격기,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최신전쟁장비들을 동원하면서 정세를 각일각 전쟁점경으로 몰아갔다.

세계가 조선의 운명을 두고 우려하던 그때 천하를 뒤흔들며 봄우뢰소리와 같은 온 나라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이 하달되고 《핵무기전 파방직조약》에서 단호히 탈퇴한다는 공화국 정부성명이 울려 퍼지였다.

세계의 여론은 지구상의 모든 핵폭탄을 다 터쳐도 조선의 이번 성명보다 위력하지 못하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오스트랄리아방송이 이날을 두고 《지구가 깨지기 시작한 날》이라고 지적한것이 우연하지 않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창건하

신 불패의 혁명무력인 백두산장군이 있고 한생을 바쳐 키워주신 자주적인민이 있는 한 두려울것이 없고 못해낼일이 없다고 하시며 고난과 역경을 맞받아 헤쳐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장정의 길에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은 수호되고 국력은 비상이 강해졌다.

제국주의의 봉쇄와 자연재해로 허리띠를 조여맨 인민들의 어려운 생활형편을 보시면서도 지금은 그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라를 지키고야아야 한다는 결연한 각오와 의지로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시고 판문점과 초도, 1211고지, 351고지, 대덕산, 오성산, 지혜산 등 최

전연초소를 찾아가신분, 다른 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위협에 놀라 스스로 무장을 버릴 때 그 누가 뭐라고 하는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는 한 가지 나라의 국방공업을 끊임없이 다져나가도록 하신분이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 한평생 걸으신 선군의 길을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어가신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의 길, 그 길에서 온갖 고생도 달게 여기신 장군님의 그 모습으로 오성산의 갈벼랑을 넘으시고 풍랑사나운 배길을 헤쳐가신 원수님이시다.

위대한 령도자, 정의의 수호자가 계시어 백두산의 봄우뢰는 민족의 앞길에 찬연한 봄을 불러, 겨레의 운명을 지켜 무궁도록 메아리 칠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인민사랑의 고귀한 귀감

목장, 소목장, 닭목장, 양어장을 비롯한 축산양어기

시설을 한나 만들어도 인민들이 덕을 볼수 있게 하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 제일 귀한것은 인민들에게 차례지도록 해야 한다는것이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관점과 림장, 요구였다.

2011년 3월이였다. 어느날 일꾼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장군님께서서는 자신께서 이 말한대로 평양시에 공동어관을 건설하도록 할데 대해 강조하시면서 공동어관을 위해 바치신 장군님께서 인소련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통라도에 유회장과 물놀이장을 꾸릴것으로 예견하고있는것만큼 공동어관도 거기에 건설하는것이 좋다고 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침과 유훈에 따라 건설되어 사람들의 문화적이고 정서적인 복리향상을 도모하고 있는것이 지금의 통라공동어관이다.

장군님께서 주제99(2010)년 2월 어느날 현대적으로 개건된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찾으셨을 때였다.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울리고있는 기업소를 찾으셨고 그이께서는 깃털처럼 부드럽고 포근한 새하얀 비날론솜을 보고 또 보시며 인민들에게 질 좋은 비

날론솜감을 더 많이 보내줄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며 못내 기뻐하시였다.

공장을 하나 건설하고 제품을 하나 만들어도 인민들이 덕을 볼수 있게 하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 제일 귀한것은 인민들에게 차례지도록 해야 한다는것이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관점과 림장, 요구였다.

2011년 3월이였다. 어느날 일꾼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장군님께서서는 자신께서 이 말한대로 평양시에 공동어관을 건설하도록 할데 대해 강조하시면서 공동어관을 위해 바치신 장군님께서 인소련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통라도에 유회장과 물놀이장을 꾸릴것으로 예견하고있는것만큼 공동어관도 거기에 건설하는것이 좋다고 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침과 유훈에 따라 건설되어 사람들의 문화적이고 정서적인 복리향상을 도모하고 있는것이 지금의 통라공동어관이다.

나는 그날밤에서 행복을

의 토지가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변모되는 천지개벽이 펼쳐질수 있었다. 태고적부터 소금밭을 건설할수 없다고 하던 동해안에는 광명성제염소, 원산제염소, 어대진청년제염소와 같은 희한한 제염소들이 펼쳐지는 놀라운 기적도 창조되었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시련의 시기에 부강할 조국의 태일을 그려보시고 귀중한 자금을 아낌없이 CNC화에 돌리신 장군님의 선견지명과 CNC기술의 세계적대편을 틀어쥐게 되었고 최첨단돌과전의 열풍이 온 나라에 세차게 일어나게 되었다.

하기에 세계의 많은 나라 당 및 국가지도자들은 한결같이 김정일령도자는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였으며 탁월한 정치가, 회세의 전략가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실 것이라고 청송하였다.

혁명가로서, 령도자로서, 인간으로서 귀을수 있는 온갖 고생과 만난시련을 다 겪으시며 한생을 초불과 같이 강그리 태워 후손

만대의 행복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업적은 또 한분의

한방울의 물에 온 우주가 비친

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장군님께서 한생을 바치시어 인민이라는 대지우에 뿌려놓으신 귀중한 씨앗들을 잘 가꾸어 훌륭한 결실을 맺도록 현명하게 이끄시는 그이의 모습에서 민족의 밝은 태일을 보며 장군님의 불멸의 생애와 업적으로 빛나는 2월의 봄은 영원할것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장군님의 유훈인 창건거리살림집과 류경원, 인민아외빙상장, 통라인민유원지,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 평양민속공원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훌륭히 완공되도록 하시였고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습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은하파학자거리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옥류아동병원과 류경구강병원을 비롯한 창조물건설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어 인민의 꿈과 이상이 현실로 펼쳐지도록 하시였다.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볼수 있도록 현명하게 이끄시는 그이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장군님의 애국의 님, 애국의 숭결, 애국의 기상을 뜨겁게 새겨안았다.

출중한 자질과 비범한 령도실력, 고매한 덕망을 지니신 그이의 위인적품모에 대해 로길남 재미동포는 《김정은최고령도자는 백두의 정기 뿌리는 2월의 봄을 영원한 민족적대통운의 봄으로 빛내여주시는 찬란한 태양으로 우뚝 솟아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는 북녘동포들의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받으며 백두산위인들이 지닌 열렬한 조국애, 민족애, 인간애로 2월의 봄을 더욱 아름다운 화원으로 만발하게 해주고있다.》고 자기의 소감을 피력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하신 강성국가건설의 만년토대를 빛나는 현실로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2월의 봄은 영원하며 장군님의 강성국가건설념원과 유훈은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에도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장군님을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영원히 잊지 못한다.

그이의 인민적령도자의 고결한 품모에 대해 재우즈베끼스판동포신문 《통일》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이 국가 및 정치활동가이시며 인간이신 김정일 장군님의 생활신조였다.》고 강조했으며 중국의 《환구시보》는 《김정일령도자는 나라를 위해 한평생 모든 정력을 강그리 쏟아부었으며 자신이 열렬히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있는 힘을 다 바쳐 일하였다.》고, 몽골의 문재페통신은 《김정일령도자는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에서 렬차에서 순직하시였다. 그이의 로고의 자취는 조선의 방방곡곡에 새겨져있다.》고 전했다.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은 애민헌신의 열정과 님을 다 바치신 위대한 인민의 아들, 인민의 어머니의 고귀한 한신이었다. 그이의 인민사랑의 렬사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본사기자 리 설

해 이 지구상에 내려오신 천출위인이시였다.》(비슈와나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김정일동지처럼 정치적으로서든 품모를 완벽하게 갖추고있으면서도 령장으로서의 자질까지 겸비하여 문무에 정통한 위인은 일찌기 없었다.》(드미트리 야조브 전 소련국방상)

우리 겨레와 진보적인류가

만들었다. 주제사상이 아니었다면 6.15공동선언도 발표될수 없었을것이다.》(남조선출판물 《말》)

《김정일령도자께서 민족과 시대앞에 그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기시고도 자신의 동상을 세우지 못하게 하신것만 봐도 그이의 위인상을 알수 있다.》(로씨야 원동련방주체 대통령전권대표)

《만민의 태양이신 김정일령도자는 인류를 위

본사기자